野 반대에도…靑 ‘김병준 카드’ 버티기

야3당 “청문회 자체 거부”
김병준 내정자 “사퇴 뜻 없다”
주내 동의안 국회 제출할 수도

민주 의원들 “박 대통령, 국정 손 떼라” 설훈·우원식·이인영·유은혜·기동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6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국정에서 손 떼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2차 사과에도 불구, 정국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야권이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지명 철회를 정국 수습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당사자인 김 내정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혀 최순실 정국’은 더욱 꼬여가고 있다.

김 내정자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열린 딸 결혼식에 앞서 기자들이 야권의 자진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센데다 여권에서조차 총리 지명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자진사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특검 및 국정조사, 김 내정자 철회와 국회 추천 총리 수용,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등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김 내정자의 이 같은 입장은 야당의 반발을 불렀다.

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광장에서의 고(故) 백남기 농민 영결식장에서 “국민 정서와 야당 분위기를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대통령이 철회하든지 본인이 사퇴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 퇴진 투쟁까지 얘기하는데 김 내정자 사정을 봐줄 여력이 없다”며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경투쟁으로 간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구석에 몰린 박 대통령도 현 단계에서 김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오히려 김 내정자의 인준을 전제로 야당 측에 ‘권한 이양’의 내용을 직접 설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양측의 입장 때문에 이번 주 초 청와대가 김 내정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 정국은 더욱 혼미해질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또다시 반발할 것이 확실시되고 여당인 새누리당의 친박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김 총리 인준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6일 “김 내정자에 대한 청문 요청서가 넘어오면 그때부터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 3당은 청문요청서가 오더라도 청문 절차 자체를 거부하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에서의 인준안 통과 요건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어서 현재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인준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다가 오히려 정국의 실타래가 풀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내정자로서는 당장 자진사퇴하기는 어렵지만 야당의 공식적 ‘비토’를 확인할 경우 결국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 내정자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총리(내정자)가 인준이 되지 않으면 총리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박 대통령으로서도 더는 ‘김병준 카드’를 고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내분에 휩싸인 새누리당으로서도 정국의 조기 수습을 위해 야권이 호응할만한 인선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확률도 있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정진석 “이런 새누리에 반기문 오겠냐”

당 원내대표 사퇴 표명도

여권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꼽혀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올해 말 총장 임기를 마친 뒤 새누리당으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여당 고위인사의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반 총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이 완전히 버림받게 생겼는데 이런 당에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이 오겠느냐. 누가 오겠느냐”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과 ‘그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반 총장이 여당인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나설 것이라는 일반적 예측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6일 “예산국회 등이 마무리되면 원내사령탑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힐 때 당의 상황을 설명하다가 나온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반 총장과 같은 충청 출신인 데다 과거 기자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오고 있어 대표적인 ‘친반’(親潘·친 반기문) 인사로 꼽힌다.

이 때문에 정 원내대표의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반 총장이 여당이 아닌 ‘제3지대’ 행(行)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 총장은 차기 여권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유력주자로 꼽히고 있으며, 총장 임기를 마치는 대로 내년 1월 중순 귀국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오늘 최고위…이정현 대표 퇴진 분수령

새누리당 이정현 〈사진〉 대표가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이라는 뜻하지 않던 암초를 만나 취임 3개월을 앞두고 퇴진 위기에 놓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대표의 당선과 퇴진의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의 명암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다.

일단 7일의 최고위가 이정현 대표의 퇴진 여부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비주류의 퇴진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유일한 비박(비박근혜)계인 강석호 최고위원이 “이정현 대표가 끝까지 버티면 7일 최고위에서 사퇴하겠다”며 최후통첩을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주말 내내 당내 중진 의원들은 물론 각계 원로들과 접촉하며 정국 상황과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권주자들 ‘대통령 거취’ 다른 셈법

박원순·안철수·이재명 ‘朴 퇴진 강경론’
문재인·손학규·안희정·김부겸 ‘신중론’

‘최순실 정국 농단 파문’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 대선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일제히 ‘퇴진론’을 외치고 있지만 차기 대선을 고려, 각론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우선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는 최후통첩을 했지만, 방점은 ‘2선 퇴진’에 있다. 헌정 중단을 막기 위해 하야나 탄핵 등 극단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서도 극단적 상황이 온다면 중대 결심을 통해 리더십을 보이는 등 선두 주자로서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즉각 하야 요구와 온·오프라인상의 퇴진 촉구 서명운동 등에 나서며 연일 선명하고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정치적 존재감을 한층 부각하면서 SNS를 통한 지지층 규합을 도모하고 있다는 분석이지만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선명성’ 부각을 통해 ‘문재인 대세론’을 넘겠다는 태세다. 조직과 당내 기반이 부족한 박 시장 입장에선 국민 마음을 얻기 위해 정치적 ‘올인’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당장 하야나 탄핵과는 선을 그으면서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권 잠룡들 가운데 젊은 주자로서 강경함보다는 안정감을 확보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부겸 의원은 당분간 박 대통령의 하야나 퇴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는 ‘신중론’ 스탠스를 지속하고 있다. 대구가 지역구라는 점에서 영남 정서를 고려한 행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야권의 잠룡들 가운데 가장 강경한 모습이다. 탄핵을 넘어 구속 수사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의 명확한 메시지가 최근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확장성을 이끌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는 대통령 탄핵이나 퇴진 요구와는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안정적인 정국 관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혼란 정국에서 안정감을 부각해 차기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최순실 사태가 정치권 지형변화 등 ‘새판짜기’를 이끄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국민의당, 오늘 비대위원장 선출

박지원 임기 연장 주장도

국민의당이 7일 차기 비대위원장을 선출한다. 김병준 카드 무산으로 외부인사 영입은 없고 당내 중진들 가운데 비대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결정한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가닥을 잡힐 때까지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6일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주 금요일 연석회의를 통해 7일 비대위에서 차기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기로 했다”며 “일단 당내 중진들 가운데서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이어 “더 이상 비대위원장 인선이 연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이 합의 추대되지 않는다면 비대위원 11명의 투표로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일각에서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달 말까지 위원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순실 정국에서 국민의당이 정치적 존재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박 위원장의 경험과 경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원내대표까지 겸하고 있고 그동안 차기 비대위원장 선출이 연기돼 왔다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나주시 공고 제2016 - 1181호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유아 및 초등학생 증가에 대비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급 증설 기반 마련과 클러스터용지 내 의료시설의 편익시설 명확화를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나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변경내용	위치	변경사유
층수변경	• 초등학교 : 4층 ⇨ 5층	빛가람동 25, 848, 384번지	• 학급 증설을 대비한 층수 완화
용지변경	• 근린공공시설 폐지(1,925.2㎡) ⇨ 유치원 신설(1,925.2㎡)	빛가람동 23번지	• 유아수 대비 유아교육시설 확보
허용용도 변경	• 교육시설(SC1) 초, 중, 고 ⇨ 유, 초, 중, 고	빛가람동 95번지	• 유아수 대비 유아교육시설 확보
허용용도 변경	• 산학연클러스터(클1~13) : 의료시설 내 편익시설 신설	클러스터용지 1~13블록	• 의료시설의 편익시설을 명확화하게 규정 - 편익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2조 제6호(주차장, 휴게소, 구내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및 제153조 제2항 각 호(숙소, 소매점 등)

2.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3.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6. 11. 7. ~ 2016. 11. 21.
4. 열람장소 : 나주시 도시과, 빛가람동사무소
5.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도시과 도시계획팀(☎061-339-8975), 교육체육과 인재육성팀(☎061-339-45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히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바랍니다.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시청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247-7700 062)372-9777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글씨는 쓰는 사람의 얼굴이고, 마음입니다.
내 아이의 성적 팍팍 올려주는
글씨교정 틀
한글, 한자, 영어, 숫자
모음을 바로 세워주는 교정틀
• 띄어쓰기, 문장부호 지도
글씨교정틀 위에서
인지능력 키우고, 자신감 두배로
• 예비선생님반(칠판글씨) • 취업반(논술체)
• 초, 중고(노트 필기체) • 성인반(궁서체)
글씨교정기 교정노트 ▶출강지도 가능
글씨교정 창업반·강사반 모집
바른글씨 교육원
교육상담 062. 525-9933 062. 269-0112